

新時代의 展望 인테리 問題 ; 不安의 精神과 「인테리」의 將來[下]

박치우(朴致祐)

展 望

나는 以上에서 『極限狀況』에 迫□된 오늘의 인테리가 『無의 深淵』의 앞에서 戰慄할 때, 不可避的으로 自身の 特性이자 자랑이든 『知性』 그 □□ 無能을 痛感하는 남어지 知□의 □□性, 正□性을 一□하고 □□□心の □□性, 眞實性을 向□□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所以□말했다. 다음 그들의 將來□크리면 果然어떠할까? 나는 于先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길이 잇으리라고 생각한다.

- 一, 宿命의 길(敗北的 奉仕에—)
 - 二, 神話의 길(과시즘的 行動에—)
 - 三, 自覺의 길(歷史的 覺醒에—)
- 一, 宿命의 길(敗北的 奉仕에)

이길은 敗北主義的인테리의 取하는길이니 危機에 直面할 때 그것□打開할 勇氣를 喪失한 一部の 分子는 모—든것을 不可避한 宿命의 所致에 몰려 積極的 打開을 斷念하고 이것을 默受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甘受함으로써 敵前에 哀願함을 最上의 延命策으로 생각하는 分子가 取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다만 現 存諸狀態에 對한 奴隸的 奉仕가 잇을 뿐이리라. 不安을 尊重하라 運命을 사랑하라, 苦惱를 甘受하라, 等等의 言辭로 不安의 文學不安의 哲學이 가르칠 때, 이러한□說이 他方 畸形的으로 以上과 같은 敗北主義를

◇……助長함에 도움될 것은 숨길 수없는 事實이니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敗北主義的 宿命論의 典型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슈팽글러의 □說을 볼 수 잇으리라. 『우리들은 이러한 時代에 生을 得한 者이나, 그러나 勇氣를 가다듬어 所定의 終末을 向하여 나아가지 안흐면 안 된다. 如何한 다른 길도 없는 것이다. 所定한 部□에서 아모리한 □□도 □□도 없이 다만 참고 견디는 것이 오직 義務인 것이다……』(人間과技術. 傍點筆者) 참고 견디는 것이

奉仕가 敗北的奉仕가 義務라고?! 勇氣를 가다듬어 奴隸가 되라는 것인가?!

二, 神話의 길

(과시즘의 行動에)絶望的인 『인테리』는 自身の 破滅속에서 知力의 全的無能을 痛感하는 나머지 미처 破滅한 自身을 收斂할겨를 조차 없어 一切의 反省을 拒否하고 一路『과시즘』的 『神話』(뫼토스)의 나라에 突入하기쉬운것이니 이러한 自暴自棄的 인테리의 取하는길이 곧 이 길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神話는 嚴密히는『썬렐[소렐]』의 所□社會的 神話의 『과시즘』的 適用을 指稱함에 不外한것이니,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뫼토스』와 所□普通 말하는『유토피아』를 區別할 必要를 于先느끼게된다. 대개 今日『과시즘』에서 말하는『血』『民族』等の 指導理念을 벌서 理智的 情態的 空想에 不過한 單純한『유토피아』의 範圍을 맞어난지 이미 오랜 까닭이다. 『血』『民族』은 今日

◇……과시즘의 理說에 依하면 單純한 한 개의『유토피아』的 概念이 아니라 實로『神話』바로 그것인 까닭이다.

『산디칼리스트』인『썬렐』이 벌서 일즉이 指摘한바와 같이『유토피아』와 『뫼토스』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區別되는 것이니, 前者가 언제나 過去及 現存한 □□□의 綿密한 分析으로부터 出發하여 □□의 空想的인 理想型을 知的으로 □成하는 知性的 所産임에 反하여(그러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情態的인 것이다)—後者는 반대로 非合理的인 □□力을 意味하는 動態的인 것이니, 血, 民族, (□□에서 있어 서는『네스트』)이 과시즘의『神話』로서 重視되는 理由가 實로 여기 잇는 것이다. 이리 하여서만 그들은 □□의 合理的 反省과 □論에

◇……눈을 감고 □□神的인 非合理的 行動에 群衆을 投入식힘에 成功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뭣 소리니의 公言을 기대할 必要조차없이 今日의 과시즘이 뫼토스의 行動主義를 高□하는 點에 있어서 完全히 한 개의『산디칼리즘』의 아들임을 알 수 잇는 것이다. 이와 □□해야 한마디附言 하려는 것은 요즘 우리들 사이에 論議되는 所謂復古主義의 擡頭에 關한 問題다. 卽 오늘의 復古主義가 一部 學者群의 復古□의 所産에 不過한 유토피아의 甘美한 回想에 高치는 性質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 目的 意圖的인 神秘的 行動主義와의 密接한 關聯下에 進行되고잇는 한 개의 커다란 『뫼토스』的 運動이나 아닌가 하는點에 대하여 몬져 檢討해볼 必要가 잇지 안흔가 하는 點이다.

◇……어찌했든 과시즘의 行動主義가 自暴自棄的 인테리의 非合理的 心情에 迎合되기 쉬우리라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니, 一方不安의 文學不安의 哲學이 또한 現在『과시즘』의 工作과 不可分의 現實關係를 맺고 잇다는 公然한 事實에 想到할 때 이것이 決코 偶然이 아닌 것을 알 수 잇으리니, 대개 이를

思想의 反主知主義의 □□가 行動的으로 畸形化 할 때 『과시즘』에 通하리라는 것은 極히自然이기 때문이다. 不安의 哲學者『하이데겔』의 나치스의 役割도 오직 이러한 觀點에서 만남 金없이 理解되리라 이라 하여 不安의 哲學, 不安의 文學은 一方(消極的으로)는 不安愛, 苦惱愛, □□愛를 가르쳐서 宿命的 敗北主義를 □□시키고 있다는 點에서—他方((積極的으로)는) 그의 非合理主義에 依하여 과시즘의 神話主義를 □□시키고 있다는 點에서 二重으로 『과시즘』의 工作에 協力하고 있는 것이다.

三, 自覺의 길(歷史的 覺醒에—)

이 길은 餘地없이 破滅된 自身の 破片 中에서 마치 粉碎된 □片中에서 眞珠를 찾듯이 참된 自我를 찾아 보려는 分子가 取하는 길이다. 不安과 絶望의 한복판에 우뚝이 서서 이에 屈함이 없이 일어버린 自身을 찾아 내는 自覺의 인테리의 取하는 길이다.

『야스펠스』의 말한바와 같이 참된 自覺은 다만 『極限狀況』에 부닥칠 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부닥치는 者는 누나 할 것 없이 모조리 이러한 自覺을 얻는 것은 아니니 만약 一次宿命과 神話에 逃避하는 限 그곳에 참된 自覺이 있을 理萬無이기 때문이다. 自覺이란 元來 自身을 찾는 것—

◇……일어버린 自身을 다시금 完全히 내 것을 만드는 것을 意味하겠기에 말이다.

그러면 대체 이 같은 破滅에서 自我를 찾으려면 어떠한 態度가 必要될가? 그것은 如何한 破滅中에서도 能히 自身을 收拾할만한 『冷靜』과 『勇氣』일 것이니, 冷靜이란 다름 아니라 오직 그가 今日과같이 □□하지 아니치 못한 歷史的 根據에 對한 客觀的 認識을 意味하며 勇氣란 다름 아니라 이러한 認識으로부터 必然的으로 奔出될 原因除去의 實踐에 志向될 情熱을 意味한다.

不安의 哲學 不安의 文學이 意圖한바도 이러한 참된 自我를 찾아보려는 點에 있었든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發見한 것은 果然무엇이었든가? 『도스토예프스키』의 『키리코프.이반. 카라마조프』 『지드』의 『□르날』—『셰스토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地下室의 사나히』等等을 보라! 이들의 特徵은 그들이 모조리 歷史의 흐름과 『리듬』과는 全然關係없이 浮動하는—때로는 오히려 逆行하는—人間이었다는 點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조금도 歷史的 覺醒을 가지지 못한 人間들이었다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 있어도 □□은 없었고 □□은 있어도 □□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이데겔』은 어떠한가 『야스펠스』는 어떠한가. 그들이 發見한 참된 自我란 果然어던 것이었든가? 曰『可能的 實

存在』『本原的 自己』等等. 우리는 여기에서

◇……**幽靈들의** □氣□한 한 개의 行列을봄에 끄칠 따름이니, 元來이것들은 現實性으로서의 人間이 아니라 오직 可能性으로서의 人間임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一般로 不安의 思想家の 共通的인 特徵은 그들이 언제나 非歷史的이라는 것, 反歷史的 超歷史的이라는것, 卽 歷史的 覺性이 缺如한다는 것이니, 最近 傳해지는『지-드』의 轉向은 果然興味있는 것이니, 그의 새로운 到達은 그가 只今에야 겨우 歷史的 覺醒을 通하여 참된 自我를 發見함에 成功했다는것을 의미함에 不外한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지껏 不安과 虛無에서 誠心껏 찾든

◇……**참된自我** 를 이제야 겨우 찾엇음을 告白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의 인테리가 不安과 虛無中에서 이것을 헤치고 歷史的 覺醒을 通하여 일헛든自身을 도로 찾게 되는 全自覺過程을 특히『지-드의길』또는『지-드의方向』이라고도 부를 수 잇을 것이니, 事實『지-드』가 걸은 길이 바로 이 길이였기 때문이다. -(完)-